

■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가 함께하는 한라산 숲학교 (8)무릉초등학교

“오늘 내 이름은 ‘솔바람’, ‘단풍’이예요”

한라산둘레길 동백길 탐방
올해 첫 현장체험학습에 활기
생태이름 지으며 숲속 걸어
항일운동 이야기엔 큰 관심



17일 한라산둘레길 동백길 탐방에 나선 무릉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유육규 자연환경해설사로부터 숲속 이야기를 듣고있다.

간밤에 내린 비로 촉촉히 젖은 숲길에 낙엽비가 쌓여 늦가을의 운치를 더했다. 바스락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에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포개진다. 코로나19로 교실에 묶여있던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아이들의 얼굴에 ‘숲 소풍’에 대한 기대감이 한가득이다.

17일 한라산둘레길 동백길에서 무릉초등학교 3학년 학생과 인솔 교사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 교육청·한라일보와 함께하는 숲 학교’가 진행됐다. 아이들에게 올해 첫 현장체험학습이었다.

‘숲 학교’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이름을 가졌다. 솔바람, 단풍, 버섯, 소나무, 비자

나무, 이끼, 뱀, 낙엽 등 저마다 개성 넘치는 ‘생태이름’을 지어 붙였다.

이날 아이들은 유육규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2시간여동안 숲길과 제주의 역사길을 탐방했다. ‘조릿대 배’를 만들어 띄워보고, ‘동백 배지’를 만들며 숲과 더 친밀해졌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제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에서는 나뭇가지에 나뭇잎을 끼워 만든 ‘나뭇잎뱀’을 현화하고 묵념하기도 했다. 유 해설사는 아이들에게 제주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도 빼놓지 않았다.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지닌 숲 속 식물들의 이야기를 비롯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가는지 등 유해설사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를 쫓긋 세웠다.

‘이끼(홍유란)’어린이는 “만들고, 걷고 모든게 즐거운 하루였다”고, ‘뱀(박하민)’어린이는 “다음에 꼭 부모님과 함께 다시 오고 싶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버섯’이는 “역사공부도 좋았다”고 거들었다.

이날 아이들을 인솔한 김경란 교사는 “견기도 하고 재미있는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준 것 같다”면서 “친학 온 친구들에게 제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동행한 김은희 교감도 “프로그램이 재미있게 구성돼 있어서 좋았다”면서 “아이들이 자연과 벗하고, 서로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흐트렷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어제 제주시 최고기온 26.7℃ 기록

11월 기준 역대 최고
기상청 “19일 제주 전역
돌풍 동반 많은 비 예상”

지 평년보다 8~12℃ 높아 10월 중순의 평균기온과 비슷하겠다고 예보했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8~19℃, 낮 최고기온은 24~27℃,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1℃, 낮 최고기온은 23~25℃가 되겠다.

17일 제주시의 낮 최고기온이 26℃를 웃돌며 11월 일최고기온으로 가장 높았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제주시 낮 최고기온이 26.7℃로, 기상관측 이래 11월 기온으로 ‘뱀(박하민)’어린이는 “다음에 꼭 부모님과 함께 다시 오고 싶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버섯’이는 “역사공부도 좋았다”고 거들었다.

이날 제주시의 낮 최고기온이 26℃를 웃돌며 11월 일최고기온으로 가장 높았다. 제주시 지역의 종전 11월 일최고기온은 2011년 11월 2일의 26.4℃였다. 제주도내 역대 11월 일최고기온은 28.0℃로, 서귀포시(2005년 11월 6일)에서 기록됐다.

기상청은 “남쪽으로부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사와 지형적인 영향으로 산남보다는 산북의 기온이 더 높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귀포시 낮 최고기온은 23.5℃, 성산 23.8℃, 고산 24.4℃를 나타냈다.

기상청은 남동풍이 계속 유입되며 18일에는 기온이 더 오르고 19일

도 18일 오후 6시까지 남동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다 그 이후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돼 19일에는 산지와 남부에 30~80mm, 그 밖의 지역에는 10~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18일 오후부터 바람도 점차 강해져 19일 새벽 산지를 중심으로 초속 10~16m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비가 그치고 20일 새벽부터는 기온이 내려가 아침 최저기온은 13℃, 낮 최고기온은 14~17℃에 머물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9일 새벽부터 북서쪽으로부터 강하게 유입되는 차고 건조한 공기에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해 남동진하면서 오후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문미숙기자

제주 연근해 갈치·참조기 ‘풍년’

10월까지 위판액 작년보다 50% 이상 ↑

제주 연근해에 갈치와 참조기 어장이 형성되며 어업인들의 조업으로 분야성이 이루고 있다. 이들 어종은 크기도 커 좋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제주시·한림·추자도 수협 10월까지 연근해 어선어업 위판량과 위판액은 각각 2만802t, 17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 32% 증가했다.

추석 이후 제주 연근해와 동중국해(마라도 해역)에 갈치와 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생산량 증가에 상품성도 좋아 위판단가가 높게 유지되고 있다.

어종별로는 갈치 위판량이 7337t으로 작년 동기 대비 9% 증가했고, 위판액은 893억원으로 56% 증가했다. 갈치 평균 위판단가는 10kg(20~25마리)에 22만5000원으로, 작년 동기(19만2000원)보다 17% 높다.

참조기는 5369t에 482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위판량은 29%, 위판액은 53% 늘었다. 참조기는 최근 몇년간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는데, 올해는 어획량이 증가한데다 위판 평균단가도 13kg에 28만8000원으로

작년 동기(24만4000원) 시세보다 18% 높다.

고등어는 위판량은 2257t으로 3% 증가했지만 위판액은 34% 증가한 65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옥돔, 방어, 멸치는 올들어 위판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돔은 330t, 74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37%, 25% 감소했다. 방어도 위판량이 51t, 위판액 2억 5300만원으로 각각 71%, 6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미숙기자

제주청소년 모의유엔 비대면 온라인으로...

제주도교육청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제10회 제주청소년 모의유엔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4~15일에 이어 이달 21~22일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도내 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제주청소년 모의유엔 사무국(JOINED MUN)을 꾸리는 등 운영진을 구성해 행사를 준비해왔다. 사무총장은 성강모(제주고 2학년) 학생이 맡았다.

이 행사는 실제 UN 회의를 표본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안전보장이사회(SC), 유엔총회 제3위원회(GA3), 유엔환경계획(UNEP) 등 총 6개 위원회로 운영된다. 도내 중·고등학교 총 76명이 각 나라의 대사단에 소속돼 자국의 입장에서 위원회별 의제에 대해 토의를 벌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와 국제기구를 이해하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진선희기자



제주 찾은 ‘겨울 진객’ 저어새 17일 겨울을 나기 위해 제주를 찾은 ‘겨울 진객’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호) 10여마리가 구좌읍 바위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교육문화 학생카드 연말까지 사용해야”

올해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 사용 기한이 12월 31일로 종료된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한 만료 전 조속한 카드 발급 및 지원액 사용을 17일 당부했다.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

으로 교육방송 및 학습도서 구입 등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는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재)발급기한은 12월 18일까지다.

도에 따르면 현재 카드 발급률은 96%이며, 이용 건수 및 사용금액은 온라인 학습 강의 수강 345건·7900만원, 도내 지역서점에서 서적 구매 1만5591건·7억4100만원이다.

등록된 카드 가맹점은 온라인 강의를 비롯해 진로진학 컨설팅(유웨이, 투모라이즈), 도내 지역서점 28개소 등 34개소이며, 가맹점에서 학력향상에 필요한 강의와 학습도서 구입 및 진학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이달 25일까지 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주꿈바당 홈페이지(http://jeju.nhdream.co.kr) 및 전화 응답조사를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2020 Online 제주청소년 문화올림픽

2020. 11. 21.(토) 11:00 ~ 16:00

1부: KCTV 방송채널 및 홈페이지
2부·3부: YouTube 제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채널

<p>1부 몸으로! 청소년 공연</p> <p>11:10~12:30</p> <p>10개 동아리 공연·KCTV 송출 ▶ TV 송출 후 유튜브 공개</p>	<p>2부 손으로! 만들기 체험</p> <p>13:00~14:00</p> <p>1 네온사인 2 니트레터링 3 독서대 4 아크릴패드 무드등</p>	<p>3부 꿈으로! 직업인 인터뷰</p> <p>14:00~15:00</p> <p>1 유튜버 2 법의학자 3 AI·자율주행차 전문가 4 게임회사 종사자</p>
--	---	--

주최 **Jeju**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Youth Service Center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청소년의 미래를 여는 전문파트너

www.jejuyouth.net

제주특별자치도 Youth Service Center **청소년 활동진흥센터**